

세월호 아픔 문화로 치유

2주기 광주 곳곳 작품전·공연

은암미술관·한평갤러리 전시
김향득 사진작가 '리멤버'
노대동 물빛공원 광장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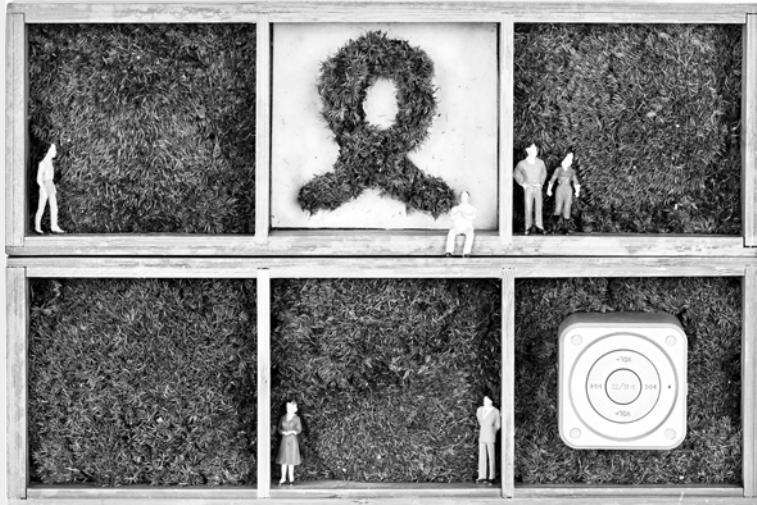
전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2주기가 다가왔다. 너무 일찍 하늘로 가버린 295명의 영혼. 아직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광주 곳곳에서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아픈 마음을 달랠 전시와 공연이 열린다.

은암미술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기억을 나누다'전이 진행된다. 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은암미술관, 청소년플랫폼 마당집이 주관한다. 이번 전시는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은암미술관은 전시장소 제공을 비롯해 작품 설치 등을 도왔고 홍보 팸플릿, 현수막 등은 업체에서 무료로 지원했다.

전시에서는 작가 20여명과 함께 Y해 밀학교 학생들, 아이돌빛고을교육센터 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일 동안 준비한 소규모 작품 1300여점을 선보인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제작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 집, 어두운 밤하늘을 지켜줄 부엉이, 천국에서 쓸 동전지갑 등 각종 공예품이 전시된다. 또 일기를 쓰듯 엮서에 그린 그림, 한울 한울 기억 조각을 맞춰가는 뜨개질 작품 등을 통해 추모 마음을 전한다.

이번 행사는 은암미술관에 이어 25~30일 재암미술관(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수완재활병원 1층)에서도 진행된다. 전시 작품은 구례 자연드림파크 2주년 행사(23일), 동네책방 '숨', 자연드림 일곡카페, 아라온더 이어 카페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민선 작 '박스 오브 메모리'



김향득 작 '유가족'

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은 오는 6월 안산을 방문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기부금(87명 참여·203만원)과 함께 판매 수익금, 남은 작품 등을 유가족에게 전할 예정이다.

행사를 기획한 추현경 기억나눔프로젝트감독은 "이번 행사는 미술·공예·디자인 등 우리만의 언어로 세월호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을 담았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문의 010-3616-4254. 대안예술시장 한평갤러리도 세월호 추모에 동참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풍(風)진 세상'전은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 메시지를 전한다. 서정서, 위재환, 이정은,

임준규, 정다운, 정서연, 최성욱 등 작가 7명이 참여해 각자 방식으로 세월호를 표현한다.

서정서는 시대가 품은 우울함을 작품 속에 녹였다. 연필로 그린 소녀의 감긴 눈과 복잡한 표정은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짜증이 진하게 묻어있다. 까만 배경은 희망이 없는 미래, 관대로운 일상이 느껴진다.

위재환의 설치작품 '기억'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 방독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표현했다. 방독면은 익사 혹은 질식사 이전에 맞닥뜨린 고통을, 등에 진 배낭은 고통의 무게를 상징시킨다.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 매달린

승객들이 떠오른다.

사진작품 '바람이 지나간 길'(최성욱)은 바람에 날아가는 풀이 소재다. 초록색이 주는 건강한 생명력이 작품을 채우고 있다. 작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전한다.

정다운에게 물총은 진짜 총(권력)에 맞선 사회적 약자의 아우성이다. 물총이 겨누고 있는 표적은 세월호 참사 조사과정에서 인면수심 행태를 보인 국가권력이다. 문의 062-233-1420.

김향득 사진작가도 오는 11일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서 개최하는 사진전 '리멤버'를 통해 세월호를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이었다. 그는 약 10년 전부터 옛 전남도청 건물 변화모습과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카메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가 세월호 참사를 만나면서 기록한 또 다른 현장을 보여준다. 빌딩 밖에서 오열하는 유가족, 시민상주모임 가두행진 모습 등이다. 문의 010-6290-5639.

16일 오후 7시30분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개최되는 '제 72회 광장음악회'는 'Remember 세월호'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 첫무대는 양상발 '내 영혼 바람이다'. 이어 소프라노 정마리아 씨가 '별', '언덕 위의 집'을 들려주고 메조 소프라노 임선아씨가 '동심초',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들려준다.

강우정씨는 함민복의 '숨 쉬기도 미안한 사랑' 시낭송을 하며 바리톤 정찬경씨는 '고향', '날 잊지말아요'를 부른다. 마지막에는 모든 공연자들이 참여한 '거위의 꿈'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년 동안의 꿈

신형철 칼럼



최근 어느 강의 중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1900)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한다. 이 대작은 하나의 꿈으로부터 출발했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한 히스테리 환자를 분석 치료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 얼마 후 그녀를 만나고 온 동료 의사 오토로부터 그녀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소식과 그녀의 가족들이 프로이트를 원망하고 있다는 뉘앙스까지 전달받는다. 그 착잡한 날 밤에 그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그 환자는 히스테리가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는데 발병 원인은 동료 의사 오토가 부주의하게 놓은 주사였다.

환자의 이름을 따서 '이르마의 주사(注射)'라 이름 붙여진 이 꿈을 해석하면서 프로이트는 비로소 '꿈의 해석'을 구상할 수 있었다. 길고 꿈꿈을 때리는 상황이 되어 통쾌해진다. 요컨대 이것은 프로이트 자신의 소망을 은밀하게 충족시켜주는 꿈이었다. 프로이트는 이것이 세상 모든 꿈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꿈은 소원성취다.'

그러자 반론이 쏟아졌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다. '꿈속에서 만찬을 열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라 상점은 문을 닫았고 마침 전화도 고장이라 배달을 시킬 수도 없어서, 결국 만찬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소원성취인가?' 프로이트는 추가 질문을 통해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낸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친구 중 하나를 특별히 칭찬했고 그래서 그녀가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 남편은 풍만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마른 체형이어서 그녀가 마땅

이라 여겼다는 것 등등. 이제 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만찬이 열려 그 친구가 초대받아 음식을 먹고 풍만해져서 안 되겠기에 만찬은 실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언뜻 보면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소원 성취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다. 이제 그의 명제에는 좀 더 살이 붙는다. "꿈은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나의 학생들도 속속 반론을 제기했다. 캠프 중 꿈에 귀신이 나와 서둘러 철수했던 큰 산사태가 일어나더라는 사연, 고등학교 시절 꿈에 낯선 남자가 나왔는데 다음날 배정된 반의 담임교사가 꿈속의 남자와 똑같았다는 사연 등등.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만에는 프로이트 식으로 대답을 해나갔다. 그러나 쉽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에 대한 내 대답은 조심스러웠고 변변치 않았다. 반박할 논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논리를 갖다 댈 영역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슬픔 중에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많지 않겠으나, 그런 논리들이 그 슬픔에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프로이트가 소개한 또 다른 유명한 꿈을 떠올렸다. 병든 아이의 침상 곁에서 며칠을 지새운 아버지는 아이가 죽자 툭툭 울다가 아이의 시신을 잠시 놓아두고 열병방이 잠이 든다. 그런데 꿈에 죽은 아이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빠, 내가 불에 타는 것이 안 보여요?" 깨어나 열병방으로 달려가 보니 촛불이 넘어져 아이의 수의(壽衣)가 타고 있더라는 것.

물론 열병방의 빛과 열기가 잠든 아버지에게도 전달되어 꾸어진 꿈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깨어나지 않고 꿈을 꾸고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프로이트의 답은 이렇다. '아버지는 꿈에서 다시 만난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었다.' 그러니 이 꿈 역시 소원 성취인 것이다. 이 꿈을 말할 때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는데 학생들은 물렸을 것이다. "아빠, 내가 물에 잠기는 것이 안 보이세요?" 프로이트는 추가 질문을 통해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낸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친구 중 하나를 특별히 칭찬했고 그래서 그녀가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 남편은 풍만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마른 체형이어서 그녀가 마땅

<평론가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임신한 광주시립발레단원 사퇴 종용 논란

해당 감독 "그런 적 없다"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임신한 단원에게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립예술인 노조는 "지난 15일 A감독이 임신한 단원 두명과 다리를 다친 단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고 한 후 의사를 밝히지 않

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은 "임신했으니 발레단을 그만 두라고 한 적이 없고 몸상태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 판단을 하라고 했다"며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객원 무용수 여부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 시한을 말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예회관측은 "현재 감

독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도 엇갈린 상황"이라며 "우선 사실 파악을 정확히 한 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한 노조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 정지 후 실태 조사를 하거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착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허 단열성 시공대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뫼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우정
061-461-1800
H. 010-3631-0372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